

손광은 시인 보성 생가에 '보리打作' 시비

보리재배 즐기고 비리만 느는 세상 향해 신명난 '도리깨질'

문단 데뷔 50년 ... 노동면 금호리에 민속시·애향심 기려

“소가 웃는다/ 보리가 웃는다 전라도 보리가 웃는다/ 쌀보다 못하고/ 보리보다도 못하고/ 경상도 겉보리보다 더 못한 / 전라도 쌀보리가 웃는다/ 더벅머리 선머슴/ 코웃음처럼...../ 배길 수 없는 말 하곡 매입...../ 어저지로 삼키면서/ 삼소리가 웃는다/ 흙속에서 웃는다(하락)”



트' 파문으로 정치권의 부정부패가 드러난 상황에서, 손 시인의 시 '보리打作'은 농촌의 현실과 연계돼 새로운 이미지와 해석의 가능성을 선사한다. 손 시인은 향토적, 토속적 가락을 토대로 정감한 시를 써온 남도의 대표적 시인이다. 때로는 민중의 삶과 숨결을 마당굿처럼, 때로는 판소리처럼 살아 약동하는 가락을 형성했다. 그가 '민속시'로 문학을 집대성한 최초의 민속시인으로 불리는 이유다.

얼마 전만 해도 이맘때 시골길을 가다보면 보리가 익어가는 풍경을 볼 수 있었다. 예전에 비해 보리를 많이 심지 않지만, 70년대까지만 해도 남도 들녘은 수확을 앞둔 보리밭 물결로 장관을 이루었다. 농업이 주 산업인 남도에서 보리가 지나는 의미는 남달랐다. 타작을 하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잔치를 벌이곤 했다. 올해로 문단 데뷔 50주년을 맞은 손광은(80·전남대 국문과 명예교수) 시인의 시 정신과 애향심을 기리는 시비가 20일 보성군 노동면 금호리 생가에 세워져 화제가 되고 있다. 시비에 음각된 작품은 '보리打作'.

시인이 걸어온 길은 곧 삶의 길이였다. 그의 시작(詩作)은 감성을 토대로 현실의 삶을 담아내는 영혼의 탐색 작업이었다. 삶의 흐름 속에서 시대적 정수를 찾기도 하고, 인간 영혼의 보편적 감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손 시인은 1962년 '현대문학'에 김현승 시인의 추천으로 문단에 나왔다. 그는 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로, 더러는 시를 쓰는 문인으로 남도 문학계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시비에 새겨지는 '보리打作'은 60년대와 70년대 사회 일각에서 행해졌던 부정적



손광은 시인의 생가 보성군 노동면 금호리에 세워진 '보리打作' 시비.

재자 색출을 '반어적'으로 꼬집는 작품이다.

“당시에는 보리수매와 연관된 의혹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속 시원하게 풀어내지 못한 채, 송사리때만 잡고 변죽만 울리고 번번이 끝나고 말았다. 몸통은 따로 있는데도 말이다. 한바탕 도리깨질을 하듯 시원하게 털어냈으면 하는 생각들이 넘쳐나고 있었다.”

손 교수는 사회적 기능을 담아내기 위해 도리깨질을 서민의 분노, 저항과 연결시켰다고 한다. 시에서 강렬한 호흡과 정의감이 느껴지는 이유다.

당시 '전라도 보리'는 경상도 겉보리보다 못한 가격에 공판되었다. 시인은 '전라도 보리'를 '전남김금동의'로 상징해 시를 쓰기도 했다. 시 속에서 '소 웃음'은 비양

거리는 웃음을 뜻하며 소는 당시 집권당 민주공화당을 상징한다. 손 교수는 시니컬하게 웃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긴급동의 형식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부정부패에 만연된 시대를 희화화한 것이다.

이준배 대형김현승문학연구소 이사는 “당시 손 시인의 시는 시대의 상황을 여실하게 드러냈다는 평을 받았다”며

“지금 세대는 보리타작에 대해 잘 모르지만 운율이나 해석적인 면과 연계하면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초기의 풍자적이고 사회적인 시풍과 달리 시인의 이후 작품은 예술적이며 심미적 경향으로 전이된다. ‘고향 앞에 서서’는 고향에 기반한 예술적 삶에, ‘그림자의 빛깔’이나 ‘신명을 풀어라’ 등 작품집에서는 민속에서 근거한 감성에 초점을 맞춘다.

손 시인은 “녹차의 고장 보성에 시비가 건립된다니 감사하고 뿌듯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도 없지 않다. 지금도 세상은 온통 악취로 뒤덮여 있지 않는가. 저마다 나름의 방식으로 더럽혀진 세상을 향해 도리깨질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데

‘계산예가(桂山藝家)는 시간 속에서 만나는 어제와 오늘이고/공간 속에서 만나는 옛날과 오늘입니다/계산예가는 나를 찾는 여행의 시작입니다.’

대구근대골목투어(근대골목투어의 제2코스에 자리하고 있는 계산예가의 홍보글이다. 근대골목투어는 대구 읍성 주변의 1000여 개 골목에 스며있는 1000여 개의 이야기를 5개의 코스로 엮어낸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매년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다녀간다.

‘계산동 예술인의 집’이라는 뜻의 계산예가는 이 같은 근대골목투어의 후광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만 하면 온갖 정보가 톡톡 튀어나오고 근대문화인물의 작품을 게임으로 풀어볼 수도 있다.

최근 광주문화재단이 광주 출신 예술인들을 관광패키지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해 ‘광주문화예술인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을 추진 중이다. 문화재단에 따르면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개관(9월 예정)에 맞춰 빛고을 문화관 1층(광주시 남구 구동)에 양림동 출신 대형 김현승과 광산구 출신 국창 임방울 등 예술인들에 대한 이야기브로chure와 문화예술의 후원자들을 기리는 기부관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명예의 전당은 지역 예

계산예가 vs 명예의 전당

곳이다. 5개의 코스 중 가장 인기가 많은 2코스(근대문화골목)의 중간 지점인 시인 이상화 고택 옆에 자리한 덕분에 대부분의 관광객은 이곳에 들러 잠시 휴식을 취한다.

그렇다고 쉽다고만 생각하면 오산이다. 계산예가는 지난 2012년 골목투어를 활성화하고 계산동 일대에서 활동했던 작가들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문을 연 근대문화체험관이기도 하다. 313.9㎡ 부지에 깔린 한옥 형태로 지어진 이곳에서는 ‘배알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이상화, 소설 ‘빈처’의 현진건, 가극 ‘동무생각’의 박태준, ‘나물 캐는 처녀’의 현제명, 서양화가 이인성 등 근대 예술인들의 사진과 자료, 영상물을 만날 수 있다.

무엇보다 계산예가의 강점은 짜임새 있는 콘텐츠다. 계산동 예술인들과 작품들에 대한 정보를 그래픽 패널과 터치 키오스크(kiosk·무인정보단말기)로 활용해 생생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손가락을 특정 예술인이나 작품에 살짝 대기

술인들을 관광브랜드화하는 아트투어리즘(art tourism)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명예의 전당이라는 거창한 타이틀과 달리 협소한 공간과 명예의 전당에 입성시키는 예술인 선정 기준, 기존의 예술인 기념관과의 차별성, 콘텐츠 구성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수도무다. 특히 영감(靈感)의 창고인 창작의 산실을 배제시킨 채 예술인들의 일대기를 마치 백화점 상품처럼 한자리에 ‘진열’하는 것은 작가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대구의 계산예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계산예가가 관광명소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근대골목투어와의 시너지와 계산동이라는 장소성이다. 유명 예술인들의 기념관에 가면 작가의 발자취와 작품의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명예의 전당이 ‘이름값’을 하게 하려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보림사 산사음악회 오세요

25일 선차 축제와 함께 ... 임동창·이동원 등 출연

장흥 보림사(주지 일선)는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사찰 경내에서 '제3회 보림사 선차 축제 및 산사음악회'를 연다.



임동창



이동원

법요식과 선차시음, 산사음악회 등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그간의 은덕에 감사하고, 가정의 달인 5월 산사에서 펼쳐지는 문화공연을 통해 가족과 이웃의 의미를 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보림사는 사찰 인근에 야생초화가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수행과 차가 돌이아 나라는 선차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일선 스님은 “아름다운 가자선의 신록과 함께 마시는 향기로운 차 한 잔에 세상 번뇌와 시름을 씻고 부처님의 기쁨을 가득 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1-864-2055.

구산신문 중 가장 역사가 깊은 가자산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체험 뮤지컬 '종이나라의 엘리스'

23일 극단 '하나비' 초청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오는 23일 오후 4시 교육관 대강당에서 극단 하나비를 초청, 퍼포먼스 체험 뮤지컬 '종이나라의 엘리스'를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페이퍼 랜드의 축제를 위해 왕기와 토끼가 마술과 종이접기 연습을 하면서 시작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종이 모형들이 사라지자 왕기와 토끼, 엘리스가 함께 새로운 종이접기 모형들을 만들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어 간다는 내용이다.

전지도 보고, 공연도 보며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퍼포먼스 체험 뮤지컬인 이번 공연에는 화려한 영상과 미술, 종이접기 체험이 더해진다.

극단 하나비는 '후토스와 친구들', '비틀개비' 등 다양한 작품을 개발·제작하며 정주 예술의 전당, 부천 문화재단 공식 초청 공연 등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공연은 무료로, 3세 이상부터 입장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gwangju.museum.go.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62-570-7025.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지역대표 독서프로그램 지원 사업' 수행 주관처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6월11일까지 '2015 지역대표 독서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수행할 지역주관처를 공모한다.

진흥원의 지역대표 독서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출판·독서·문화·예술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의 문화와 여건을 고려한 지역의 독서프로그램을 사업 공모 방식

을 통해 모집하고, 전국 17개 권역별로 1곳씩을 선정해 단체당 1000만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출판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pipa.or.kr) 또는 독서인 홈페이지(www.kpipa-read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2669-0773.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치평동 정현철

상가·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매 16억(보 1.8억 월750만)
- 신창동 4층건물 매 29억(보 4.2억 월 1,340만)
- 수완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신정동(혹석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두암동 상가건물 매 42억(보7억 월2,300만)
- 장덕동 8층구분상가 매매 826㎡ 8억(조정가,분할매매가)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매 6.9억
- 풍암동 4층 상가주택 매 7.2억
- 장덕동 8층 상가 826㎡ 임대 보 1억/ 월 450만 (매일리레스토랑적합)
- 치평동 상가 4층 임대 310㎡ 보5천만/월300만 (학원, 사무실 적합)
- 벽진동 미소마을부근 창고 230㎡ 임대 보3천만/월170만(조정가)

대지·전용가능 녹지·전/답

- 총장로4가 중심상업지역 대지 2,270㎡ 매 41억
- 서구 벽진동 대지 230㎡ 매 5억
- 서구 마북동 대지 701㎡ 매10억5천만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답 2,600㎡ 7.9억
- 장성군 진월면 선적리 답 2000㎡ 매 3.6억(전원주택부지)
- 담양군 봉산면 가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적합)
- 무안군 청계면 전원주택부지 882㎡ 매 1.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 010-5536-0382

퇴직하신 하신 분과 귀촌인을 위한 전원주택

매매 2억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공음면소재지) 대지 200평/건평 35평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NAVER 검색엔진에 **고창에 집짓기** 검색하시면

노무현 전 대통령님 봉하마을 사저와 부엉이 바위 펜화

왕성원 그림 가로 65cm*세로 50cm

50만원의 펜선이 모여 완성된 펜화가 김영택의 작품. 판화로 찍은 10점(한정판) 중 남은 2점을 양도합니다. 판화 가격은 1점당 120만원이며 원화를 구매하고 싶으시면 개별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010)3722-3076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롤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가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포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비파괴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